

종합·해설



오는 10월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민주당 후보로 박원순 의원이 선출됐다.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보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민주당 서울시 당원대회가 끝난 뒤 박 의원이 손학규 대표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권 나경원-이석연 단일화 공감 속 후보 경쟁

나 '시민과 스किन심' ... 이 '종교계 표심얻기'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과 '범여권 시민후보'로 추대된 이석연 변호사가 본격적인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경쟁에 들어간 가운데 단일화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나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아 한강보 절개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제3회 서울수복 기념 해병대 마라톤대회'에 참석, 한강에 설치된 수중보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절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이 변호사는 아차산 영화사에서 조계종 추부원장을 지낸 월주스님에 만나 담소를 나누는 등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월주스님의 사실상 여권 후보 단일화 주위에 대해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단일화는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신도림역 인근 도림천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상임공동대표인 인병진 갈릴리 교회 담임목사를 만나 산책을 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르면 금주 중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 서울시장 보궐 후보로는 재선의 나경원 최고위원과 김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날 이 변호사는 아차산 영화사에서 조계종 추부원장을 지낸 월주스님에 만나 담소를 나누는 등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월주스님의 사실상 여권 후보 단일화 주위에 대해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단일화는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신도림역 인근 도림천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상임공동대표인 인병진 갈릴리 교회 담임목사를 만나 산책을 하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한나라당은 이르면 금주 중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선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당 서울시장 보궐 후보로는 재선의 나경원 최고위원과 김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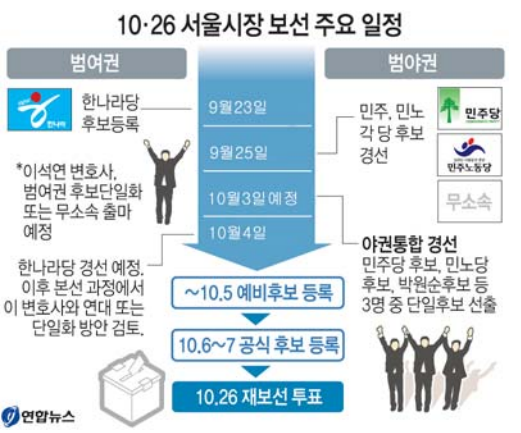
10·26 재보선 한달 앞으로... 아권 서울시장 후보 어떻게 뽑나

여론조사 3·TV토론 3·참여경선 4 경선룰 합의... 단일화 탄력

(민주·박원순측)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로 25일 박영선 정책위의장이 확정되고 아권 시민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 민주당이 주장해온 후보단일화 경선 방식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범여권 단일후보를 향한 후보 간 각축전이 본격 시작됐다. 민주당 경선이 1차 예선이었던 만큼 10월26일 본선거를 앞두고 박 정책위의장과 민주노동당 최규업 새새상연구부장, 무소속의 박 변호사가 마지막 최종 예선을 치르게 된 것이다. 아권 후보단일화 경선은 다음달 1~2일 여론조사를 거쳐 3일 치러질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정책위의장과 박 변호사가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초 아권 단일화 경선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박 변호사의 우세가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경선 료를 박 변호사가 수용하면서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박 변호사는 지난 24일 "민주당이 주장해온 여론조사 3,

TV토론 후 배심원 평가 3, 국민참여경선 4라고 하는 경선룰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일화 경선은 국민경선과 여론조사, TV토론 성격 등이 모두 반영되는 만큼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단일후보가 정해지면 박 변호사에게 '가 있던 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 후보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서 국민참여경선까지 실시하면 단일화는 해볼 만한 승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권 통합후보 경선은 일반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 결과가 40% 반영된다. 또 TV토론 후 이뤄지는 배심원 평가와 여론조사 결과가 30%씩 반영된다. 박 변호사 측은 여론조사를 100% 반영해 통합후보를 뽑자는 입장이었지만 "행동을 위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막판 수용해 경선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국민참여경선에는 조직력이 개입될 가능성 커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향후 민주당 차원에서 전통적인 아권 지지층을 상대로 국민경선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시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변호사 측은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자신에게 우호적인 시민사회 진영의 참여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선에서 처음 도입된 TV토론 후 배심원 평가도 주목해야 할 변수다. 조직력이나 대중적인 인지도가 아닌 순정된 '실력'으로 배심원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지지를 역시 아직은 박 변호사가 민주당 후보들을 큰 차이를 따돌리고 있지만 남은 경선 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검증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결과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원순, 나경원에 7~18%P 앞서

한국정치조사협 여론조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아권의 통합후보로 거론되는 박원순 변호사(전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 나경원 최고위원을 7~18% 포인트 격차로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와 12개 여론조사기관 모인 '한국정치조사협회'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지역 유권자 총 37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휴대 폰, 온라인 등 5가지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신회계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선전화 면접 조사에서 박 변호사는 42.6%의 지지율을 기록해 나 최고위원(35.2%)에 7.4% 포인트 앞섰고, 유선전화 IVR 조사에서도 47.3%의 지지율로 나 최고위원(36.6%)을 10.7% 포인트 차로 제쳤다. 휴대전화와 온라인 조사에는 그 격차가 18~18.8% 포인트로 더 벌어져

후대전화 면접조사는 박 변호사 49.6% 대 나 최고위원 30.8%, 휴대전화 IVR 조사는 51.5% 대 33.1%, 온라인 조사는 47.6% 대 29.6%의 결과를 각각 보였다. 다만 전화면접 후 등재가구만 따로 집계할 경우 박 변호사 41.1%, 나 최고위원 40.5%로 격차가 0.6% 포인트로 좁혀졌다. 한국정치조사협회 협회장인 임상렬 리서치플러스 대표는 "모든 조사 방식에서 박 변호사의 우세가 명확한 실적으로 나왔다"면서 "다만 지지율과 실제 득표율은 다르다. 짧은 투표율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고, 따라서 투표 당일엔 두 사람간 박빙의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회비갈린 민주 서울시장후보 경선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결과, 4명의 후보자들의 회비가 엇갈렸다. 우선 박영선 의원은 주류 측의 측면 지원 등에 힘입어 경선에서 승리, 민주당의 '희망'으로 부상했다. MBC 앵커 출신으로 스타급 인지도는 물론 날카로운 분석력 및 경제 마인드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됨에 따라 정치적 주가가 급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장외의 박원순 변호사와의 단일화 과정 및 결과에 따라 추후 박 의원의 정치적 비중은 더욱 확

박영선-민주 희망으로 천정배-정치적 위기

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반면, 신안 출신으로 지역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천정배 의원(4선, 경기 안산 단원 갑)은 2위를 차지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위해 지역구를 포기하는 승부수를 던졌다는 점에서 천 의원의 정

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개혁의 상징으로 평가받았던 4선의 천정배 의원이 같은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추미애 의원은 3위에 그쳤으나 만만찮은 저력을 보여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름대로 정치적 입지를 확보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추 의원은 노동법 제정 등을 놓고 당과 마찰을 빚는 등 그동안 당내 입지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계륜 전 의원은 원외라는 한계에 도 불구하고 선전했다는 평가다. 내년 총선에서의 정치적 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JTB travel agency,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stinations like Europe, Southeast Asia, and special offers.